임진왜란의 한, 영산재로 달래다
〈恨〉

태고종 부산교구, 제23회 호국영령 위령대재

4월 19일 부산 자비암서 봉행
영산재 결합한 국가 유산 발원
상진 스님 "호국 전통 문화재로"
자관 스님 "전통 가치 알릴 것"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태고종 부산교구종무원은 4월 19일 부산 동래구 자비암에서 '제23회 동래읍성 임진왜란 호국영령 위령대재 및 부산 영산재'를 봉행했다. 사진은 영산재 의식을 시연하고 있는 어산 스님들의 모습.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외세의 침략에 맞서 결사항전하다 산화한 동래읍성 3500여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영산재가 봉행됐다. 태고종은 자비암 주지 자관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위령재를 '국가 문화유산'으로 격상하겠다는 종단적 의지를 천명했다.

태고종 부산교구종무원(종무원장 자관 스님)은 4월 19일 부산 동래구 자비암에서 '제23회 동래읍성 임진왜란 호국영령 위령대재 및 부산 영산·위령재'를 봉행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위령재에는 부산을 대표하는 독창적인 '호국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종단적 의지가 담겼다. 기존 위령재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영산재(靈山齋)' 의식을 결합해 무게감을 더했으며, 태고종단의 전폭적인 지지로 장엄한 불교 예술로 승화시켰다.

1부 개회식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부산교구종무원장 자관 스님을 비롯해 장준용 동래구청장, 서지영 국회의원, 최윤홍 부산시교육감 후보,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김미화 동래구의원, 송미화 태고종 부산교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해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개회식에 이어 본격적인 영산·위령재가 거행됐다. 혜철 스님 등 18명의 전문 어산 및 의제단 스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련, 삼신이운, 천수바라, 상축, 청사, 권공, 오공양작법, 축원의 순서로 상단 의식이 장엄하게 펼쳐졌다. 이어진 관음시식에서는 이서영, 이춘란, 김미주 등 무용수들의 살풀이와 극락무가 무대에 올라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2부 순서로는 시민 소통 음악회인 '문화축제'가 열렸다. '인생은 미완성'의 가수 이진관, 태고종 홍보대사인 가수 엄재원, 가수 설라경의 무대와 함께 GAYA UB 문화예술단(단장 우성자)의 신명나는 난타 공연이 이어져 엄숙했던 위령재의 열기를 시민 화합과 전통문화 축제의 장으로 회향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치사를 통해 부산교구의 노고를 치하하고, 종단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상진 스님은 "이번 위령대재는 이 땅을 지키다 쓰러져 간 이들을 위로하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불사"라고 설파했다. 이어 "2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사를 묵묵히 이어온 자관 스님과 집행부 스님들, 신도님들의 진실한 원력에 깊은 치하를 보낸다"며 "이 거룩한 불사가 후대에 길이 남을 소중한 호국 전통 문화유산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태고종 전체가 함께 뜻을 모으고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태고종 부산교구종무원장 자관 스님(자비암 주지)은 봉행사를 통해 "작은 원력으로 시작된 위령재가 종단의 전폭적인 지지와 사부대중의 동참으로 국가적인 법석으로 승격되어 감개무량하다"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영산재와 결합한 이 거룩한 위령재를 앞으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호국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널리 알려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사찰이 수행·생산·나눔 도량돼야"

쌍계사 회주 영담 스님 기자회견
"시대 맞는 수행공동체" 당부



쌍계사 회주 영담 덕운 대종사〈사진〉가 "사찰이 수행과 신행의 공간을 넘어 생산과 나눔이 함께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담 스님은 4월 20일 하동 쌍계사(주지 지현 스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찰 운영 방향과 차문화 전승, 수행공동체 구성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는 5월 7일 개막하는 '쌍계사 차문화 대축전'을 앞두고 마련된 기자회견에는 회주 영담 스님과 주지 지현 스님 등이 참석했다. 차문화 대축전은 5월 10일까지 이어진다.

영담 스님은 먼저 "사찰은 수행도량이자 지역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분명히 했다. 스님은 "사찰은 단순한 신행 공간을 넘어 생산과 나눔, 수행이 함께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며 농사와 자급자족을 통한 수행공동체 실현을 제시했다. 이어 "쌍계사는 이미 콩, 고추, 채소 등 다양한 작물을 직접 재배하며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스님은 "사찰이 농사를 짓고, 그 생산물을 지역과 나누며 도시와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는 경제활동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수행의 연장선이자 불교적 생명관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문화 전승 방향에 대해선 "산업이 아닌 문화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차를 접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부산 학생 독립운동 역사 조명 특별전

범어사·양정청소년수련관 공동
'1919, 오얏꽃이 벙글던 날' 전시



금정총림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범어사 주지)과 양정청소년수련관(관장 박용하)이 부산 학생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전시를 선보인다. 양 기관은 4월 17일 양정청소년수련관에서 부산학생독립운동기념관 개관전 '1919, 오얏꽃이 벙글던 날' 개막식을 개최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장 정오 스님은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어섰던 학생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라며 "이름 없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켜낸 젊은이들의 희생과 용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고 밝혔다.

범어사 성보박물관과 양정청소년수련관은 앞서 부산학생독립운동기념관 조성과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번 전시는 그 첫 결실로, 향후 지역 기관과 연계를 확대해 역사와 교육이 결합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 해인정사 '선림원' 개원 "깨달음 도량될 것"

4월 19일 해인선센터 개원식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 운영



해인정사가 새롭게 조성한 해인선센터 선림원.

부산 해인정사가 수행 중심 도량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해인정사(주지 수진 스님)는 4월 19일 해인선센터 선림원 개원식을 봉행하고 참선과 명상을 통한 수행 포교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주지 수진 스님은 설립취지 및 인사말을 통해 선림원의 의미를 수행의 본질에서 찾았다.

수진 스님은 "부처님께서 '내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세계가 청정하다'고 설하셨듯, 결국 수행은 자기 마음을 바로 아는 데 있다"며 "선림원은 나를 알고 나를 정복해 본래의 평온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도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상의 지식과 성취를 아무리 쌓더라도 자신을 알지 못하면 참된 앎이 아니다"며 "이곳에서는 좌선과 행선,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스스로의 본성을 체득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진 스님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까지 확대해 마음의 고요를 체험하는 교육 도량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선림원이 현대인의 번뇌와 갈등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선림원은 2024년 7월 31일 착공 승인 이후 1년 7개월의 공사를 거쳐 올해 3월 사용 승인을 받았다. 지상 3층 연면적 약 450평 규모로 조성됐다. 이로써 해인정사는 기존 산신각, 용왕당 등의 전각과 선림원을 포함해 총 11개 동의 수행 공간을 갖추게 됐다. 해인정사는 부산 서부권을 대표하여 향후 수행과 교육, 포교를 아우르는 종합 수행 도량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대원각사, 해운대 도심서 "전쟁 종식" 발원

4월 18일 금강경 독송 행진
생명 존중 '초록산사음악회'도



지구촌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부산 해운대 도심 한복판에 울려 퍼졌다.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가슴에 품은 불자들의 발걸음은 밖으로는 '세계 평화', 안으로는 '자연 환경 보전'을 향한 전법의 장으로 펼쳐졌다.

부산 대원각사(회주 안도 스님·부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는 4월 18일 해운대 일대 및 대원각사 경내에서 '지구촌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를 위한 금강경 독송 행진 대법회'와 '초록산사음악회'를 잇따라 개최했다.

반야선원에서 집결한 80여 명의 사부대중은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좌4동 행정복지센터 네거리를 거쳐 대원각사로 향하는 거리 행진을 펼쳤다. 이번 행진은 도심 속 시민들에게 불교의 평화 정신을 알리고 대중과 직접 호흡하는 '전법 시대'의 발맞춤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회주 안도 스님은 이번 행사 의미에 대해 "세계 전쟁의 조기 종식과 평안을 기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며 "〈금강경〉은 우리 조계종의 소의경전이자 최고의 경전이다. 지금 피켓을 들고 행진하며 대중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고, 그 소중한 경전을 마음에 간직하고 가슴에 안고 걷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 대중은 발원문을 통해 "어리석은 중생을 깨우쳐 주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구촌 곳곳에 퍼져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인류가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부처님 전에 고했다.

행사는 생명 존중과 환경 보호를 화두로 한 '초록산사음악회'로 회향됐으며, 화관무 및 회심곡 등 전통음악을 비롯해 성악 무대와 색소폰 연주 등 다채롭게 펼쳐졌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도사, 율원·염불원·승가대학 합동 입학식

4월 20일 학인 스님 99명 입학
"부처님 참된 제자로 거듭날 것"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4월 20일 설법전에서 '불기2570년 영축율학승가대학원·염불대학원·승가대학 합동 입학식'을 봉행했다.

올해 통도사 영축율학승가대학원(율원)에서는 전문반 신입생 3명 등 총 9명이 수학한다. 염불대학원(염불원)에서는 전문반 17명과 연구반 7명 등 총 50명이, 승가대학(강원)에서는 40명의 학인 스님이 배움을 이어간다.

주지 현덕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새롭게 학업에 매진하는 스님들을 격려했다. 현덕 스님은 "부처님 제자로서 올곧은 길을 걷겠다는 큰 다짐과 원력 속에서 대중이 서로 화합하고 격려하길 바란다"며 "이 배움의 과정을 원만히 회향한다면 부처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염불대학원장 법산 스님은 축사를 통해 "굳건한 초발심을 잊지 말고, 대중 속에서 서로 탁마하며 수행자 본연의 자세로 학업과 정진에 매진해달라"고 정진을 당부했다.

한편, 통도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4월 29일부터 5월 25일까지 다채로운 봉축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봉축탑 점등식은 4월 29일 오후 7시 30분 양산대종과 웅상 새마을탑 화단, 산문 주차장 등에서 열린다. 5월 9일부터 25일까지 선자교에서 일주문에 이르는 구간에 다양한 장엄물을 설치하고 야간 개장을 실시해 도량을 밝힌다. 5월 16일 오후 7시 30분에는 산문에서 대웅전까지 이어지는 제등행렬 및 경내 마당등 점등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창원 정법사, 비로선원 화엄삼존불 점안

4월 19일 일반에 첫 공개
불교문화체험관, 가을 개원



창원 정법사(주지 광우 스님)는 4월 19일 비로선원에서 화엄삼존불과 법성화엄도, 천인화불도 점안식을 봉행했다.

주지 광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도량이 아직 완전하게 갖춰지지 않았지만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자리를 먼저 마련했다"며 "가을에는 모든 불사를 원만히 갖춘 뒤 성대한 개원식을 다시 봉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명법사로 나선 현문 스님은 "정법사 비로선원은 세밀한 부분까지 정성이 깃든 수행 도량으로 조성된 점이 인상 깊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량이 마련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사부대중의 지속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에 문을 연 비로선원은 불교문화체험관으로 조성돼 화엄삼존불을 중심으로 법성화엄도와 천인화불도가 어우러진 수행 공간으로 마련됐다. 법성화엄도는 송천 스님이 제작했으며, 화엄삼존불 은입사 사리복장함은 이경자 입사장이, 천인화불도는 박청용 작가가 각각 조성에 참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녕 관룡사, 산신·독성 탱화 점안

4월 19일 점안식 봉행



창녕 관룡사(주지 청우 스님)는 4월 19일 산신·독성 탱화 점안식을 봉행했다.

주지 청우 스님은 인사말에서 도량을 찾은 사부대중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탱화 점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스님은 "오늘의 불사 공덕이 개인을 넘어 도량과 지역, 나아가 모든 중생에게 회향되기를 바란다"며 "하왕산 도량이 천왕과 산신의 가피 속에 항상 청정하게 유지되고, 수행자와 신도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정진하는 복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독성의 지혜로 대중들의 수행과 소망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기원했다.

청우 스님은 선원 스님 등 집전을 맡은 스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동참 대중의 공덕이 원만히 회향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